

황비창천명 三足鳥紋 고려 동경에 새겨진 배의 국적

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요 약 : 2017년 5월 필자는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고려 동경에 새겨진 배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고려의 배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고려 동경의 원 도안은 북송대에 유래하여 금대에 크게 유행한 뒤 무역을 통해 고려에 유입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고려 동경은 중국에서 유래한 원도안을 모방하여 재주조, 변형, 재창조한 것이므로 뒷면에 새겨진 배는 고려의 배라기 보다는 중국의 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된 삼족오문 고려 동경(덕수 4927; 덕3194)에 새겨진 배는 평면형 저판 및 선수미, 중첩된 삼판, 최상부 삼판에 보이는 가룡목의 흔적 등 여러 면에서 원양항해용 평저선형 고려선박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이 기원지인 중국에 비해 고려에서 널리 모방, 변형, 재창조되어 활발하게 주조 및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유리관(于力凡)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은 북송의 徽宗(재위 1100-1125) 황제의 聖德을 讚揚할 목적으로 주조되었다. 그러나 이배근의 견해를 원용하면, 고려에서는 항해도문안을 태조 왕건의 조부인 作帝建의 설화로 해석하여 태조 왕건을 龍孫으로 지체를 높이기 위한 상징물로 활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것이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이, 북송과 금을 통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이를 모방 및 변형하고 독창적으로 재창조하여 널리 유통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 이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다.

핵심용어 : 동경, 황비창천, 삼족오문 고려동경, 항해도 무늬 거울

- I. 머리말
- II. 한중 배무늬 청동 거울 비교
- III. 삼족오문 고려 동경의 배
- IV. 배무늬 청동 거울 유행의 배경
- V. 맺는말

II. 한중 배무늬 청동 거울 비교



황비창천명 새겨진 거울
영주박물관(공무-840), d=18.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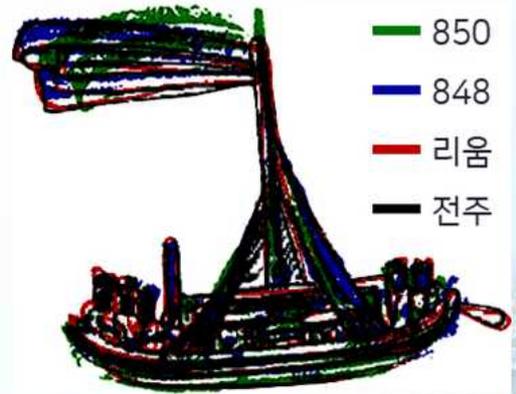
황비창천명 청동거울
승실대박물관, d=16.8cm



† 중신회원, s-junekim@daum..net

1. 머리말

- 연구사
 1. 김재근: <한국선박사>(1984), <우리 배의 역사>(1989)
 - 1) 중앙박물관 소장 풍경의 제목: 풍경에 새겨진 **고려선**
 - 2) 청주박물관 소장 풍경 속의 배 = **고려시대 양양무역선**, 평저구조선
 2. 이원식: <한국의 배>(1990)
 - 1) 중앙박물관 소장 풍경 = 조선식 노, 외판 7쪽, **고려 선박**
 3. 정진술: <한국해양사-고대편>(2009)
 - 광주(청주)박물관 소장 풍경: **고려 해외무역선**
 4. 박유석: 박사학위논문(2010)
 - 중앙박물관 소장/ 청주박물관 소장 청동거울: 고려선
 5. 노경정: 석사학위논문(2010)
 - 청주박물관, 부산박물관 소장 청동거울: 고려선
 6. 가오시형(高西省)
 - 한국 청동거울 14점 중 11점은 중국 거울의 모제물이거나 직수입품
- 논제: **삼족오문 고려 풍경에 새겨진 배의 국적**



왕비장전예박경(길림성 송도)
中國銅鏡圖典, d=16.5cm



전야안장예박경
中國銅鏡圖典



Leeum



길림성송도
(중국동경도면 848)



전주

안중 기본형의 선영 전경



전야안장경(송대/금대)
(중국동경도면 850)



리움

전주박들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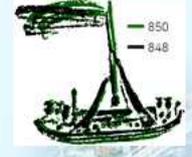
리움 +전주박들관



중국동경도면 848



중국동경도면 850



중국동경도면
848+850

III. 삼족오문 고려 동경의 배



황비장전명 새겨진 선원 세계를 찾아 가는 배를 새긴 거울
중앙박물관(덕수 4927), d=24.1cm



황비장전명 양에도문 고려동경=삼족오문 고려동경
대구박물관(덕 3194), d=24.4cm

- 출토지 : 개성 부근
- 지름 : 24cm 내외 (일반 황비장전명 동경 17cm 내외)
- 명문 : 황비장전명 뒤집어 새겨짐(皇火조츰天)
- 외형 : 원형(일반 황비장전명 동경 : 팔릉형)
- 좌측 상단 : 해 안의 삼족오/ 우측 상단 : 달 속에 나무(계수나무)와 새(양아?)
- 우측 아단 : 용과 갈을 든 사람(갈을 뚫대 방향으로 등)
- 좌측 아단 : 샅대를 갖고 있는 선원
- 선박 : 평저선형 고려선
 - 좌측에서 우측으로 양에
 - 선수미 영상 : 평면
 - 외판 : 곁불이 이음
 - 좌상단 삼판 : 가솔목의 은막
- 참조 : 유리판(于力凡) : 高麗模製銅鏡 / 가오시행 : 고려인의 장조름



IV. 배무늬 청동거울 유행의 배경

1. 天下安昌 및 煌조츰天 명문의 의미

- ‘天下安昌’이란 ‘편안이 편안하고, 장성한다’는 뜻이고, ‘煌조츰天’은 ‘밝고 큰 별(景星)과 같은 길조가 나타나 편안이 장성한다.’ (by 유리판 于力凡 : 장영의 『東京賦』, 안유의 『醉後』, 왕증의 『論衡』)

2. 도안의 의미 : 북송 徽宗(재위 1100~1125) 통치기에 ‘아날에서 길조가 나타난 현상을 통해 황제의 성덕과 위엄을 찬송하고, 四夷가 天國(천가의 나라)을 따른다.’ (by 유리판)

3. 동경수집가 이배근의 주장 : <고려동경예설>(1991)

- ‘황비장전팔릉경’을 ‘作帝建還鄉圖鏡’이라 별칭하고, 황비장전명 航海圖案은 왕건의 세대에 관한 김관의(金寬毅)의 『編年通錄』에 나오는 설화를 표상한 것.
- 왕건의 조부인 ‘작계건이 용녀와 함께 칠보와楊枝과 돼지를漆船에 싣고 바다를 건너 동토로 돌아오는 광경을 표현한 그림’이라는 것

4. 종합

- 황비장전명 양에도문경은 예조에 북송의 위중 황제의 덕망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조
- 고려에서는 양에도문안을 태조 왕건의 조부인 작계건의 설화로 해석하여 태조 왕건을 龍孫으로 지계를 높이기 위한 상징물로 이용했을 개연성

V. 맺는말

• 안중 황비장전명 청동 거울

1. 배무늬 청동거울의 문양은 중국 북송 대부터 존재, 금대에 성행. 중국의 양에도문 청동거울은 명문이 없는 것, 天下安昌, 煌조츰天 등의 명문 사용, 현재까지 10여점 발굴
2. 국내 발굴 배무늬 청동 거울은 황비장전명과 배무늬 등 중국의 것과 유사. 12~13세기 전반에 걸쳐 북송과 금을 통해 고려로 유입, 모방, 변형, 개장조
3. 일반 황비장전명 양에도문 거울에 배 = 중국 동경과 동영선 = 고려배가 아님
4. 삼족오문 청동거울 속의 배 = 고려인의 장조름 동경으로 배는 평면형 선수미형, 증접된 삼판, 좌상부 삼판의 가솔목 은막 등 = 평저선형 고려선
5. 양에도문 도안은 북송에서 유래했으나, 고려에서는 왕건의 조부 작계건의 설화로 해석하여 널리 유행
6. 황비장전명 양에도문경의 상징적 의미 : 神異의 吉祥